

전남도, 日 지자체와 잇단 교류 협력

윤학자 여사 탄생 행사 참석 방문
고치현지사 일행과 협력 간담회
사가·아마구치현 등 만남 이어
한일 관계 개선 가교 역할 다짐

전남도가 일본 지자체와 잇따라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8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김영록 지사와 하마다 세이지 고치현지사, 묘진 다케오 고치현의회 의장, 고치현의원 등 60여 명과 고치현 우호대표단 환영 만찬 간담회를 갖고 서로 협력을 다짐했다. 이는 김 지사가 최근 사가현, 아마구

치현,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 지사를 만났던 이어 잇따라 성사된 자리로, 일본과 우호협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하마다 고치현지사가 목포 공생원에서 열린 윤학자 여사 탄생 11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취임 첫 해외순방으로 전남도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만찬 간담회는 도립국악단 식전공연, 홍보동영상 상영, 환영사, 기념품 교환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양 지사는 코로나19가 잦아든 만큼 예전처럼 대면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서로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마다 고치현지사는 “그동안 양 지역이 쌓은 교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서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며 “고치현에서 일본정원을 출품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 취임 후 일본 지방정부 중 고치현을 가장 먼저 방문할 정도로 각별한 곳인데 이심전심으로 고치현에서도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첫 해외 교류지역으로 전남도를 방문해 더욱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며 “전남과 고치현이 함께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치현지사 일행은 윤학자 여사 기념행사 외에도 목포케이볼카 탑승, 편백스토리 매장, 공생원 사찰 등의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전남도와 고치현은 1996년 윤학자 여사 기념비 건립을 계기로 첫 교류를 시작한 2016년 윤 여사의 탄생일이자 기일인 10월 31일 자매결연을 하고 매년 상호 방문 등 적극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미국 ‘김치의 날’ 기념 전라도 김치 홍보·판매

해남서 김치·김장재료 상차식

김치의 날(11월 22일)을 앞두고 지난 27일 전남 김치의 우수성과 전통성 홍보를 위해 김치와 김장 재료에 대한 미국 수출상차식을 해남 화원농협 김치가공공장에서 진행했다. <사진>

이날 상차식에는 전라남도 신원군 전남도 국제협력관, 해남 농협 서정원 조합장, 수출기업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에서 생산된 배추와 무로 만든 김치 4종, 고춧가루, 천일염, 젓갈 등 각종 김장재료 16t(약 7만 달러 상당)을 상차했다.

김치의 날 11월 22일은 지난 2020년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라 제정한 대한민국 법정기념일이다.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스톱두 가지(22일)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시작으로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DC, 미시간주 등 5개 주에서 김치의 날을 지정해 이를 기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미국 현지사회에 김치의 우수성과 전라도 김치의 맛을 홍보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LA) 지역 대형 한인마켓인 한남제인에 전남도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 5개소를 활용, 전라도 김치 홍보행사를 11월 17일부터 2주간 진행할 계획이다.

홍보행사에서 상설 판매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남산 절임배추와 김장재료를 활용한 김치 담그기 시연행사와 함께 전남산 김치와 김장재료를 국내 소매가격에 구매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목포 남항에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착공

9274㎡ 규모 2024년 완공 목표
연구·실증 등 6개 연구시설 구축

전남도가 지난 27일 목포 남항에서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인프라(시설)를 착공했다.<사진> 친환경선박 연구지원 인프라는 해양수산부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조선·해운 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성하는 연구시설이다.

목포 용해동 교육연구단지 3만1996㎡(대지 약 1만평 규모) 부지에 연면적 9274㎡, 건축면적 6316㎡ 규모로 들어선다. 단지 내에는 이도식 전 원공급시스템 증진 시험동, 해상 테스트베드 유지보수동, 연구동 등 친환경선박 육·해상 연구·실증을 위한 6개 연구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국내 중소선박의 50% 이상이 밀집한 목포에 자리해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시설은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목포시가 지원하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해 오는 2024년 완



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와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친환경 선박 원천기술 확보

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 역점사업으로 ‘친환경선박 연구거점’을 구축하는데 해양수산부와 4개 사업에 총 1571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지 순천·무안 선정

지역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대상지가 순천과 무안으로 결정됐다.

‘청년문화센터’는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대규모 문화·창업·소통·체육 종합 공간이다. 2025년까지 전남도 사업비 400억원, 시·군 부지 제공 80억원 등 총 480억원을 들여 거점 지역에 2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최적의 거점별 건립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난 9월 전남도의 공모에 12개 시·군이 응모했다. 대학 교수, 청년 활동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 현장,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입지 적합성, 접근성,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거점별 건립 대상지로 순천과 무안을 선정했다.

순천에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인접한 품격동 7000㎡ 부지에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어울림센터,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청년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에서는 오희지구 3500㎡ 부지에 완성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소년이 주최한 전남도 청소년박람회

기획부터 홍보·운영까지 주도

꿈 찾는 체험부스·공연 등 다채

꿈꾸고 도전하는 청소년의 미래 행복을 응원하는 제1회 전라남도 청소년 박람회가 지역 청소년 스스로의 힘으로 준비해 펼쳐졌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과 전남청소년행복성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29일까지 이틀간 도청 일원에서 전남 청소년들이 미래산업과 진로 체험, 문화콘텐츠를 즐기는 장으로 열렸다.

‘청소년의 꿈을 디자인하고 행복을 찾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박람회는 청소년이 준비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박람회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기획단’을 구성해 그들의 아이디어가 곳곳에 묻어나는 행사를 준비했다. 박람회 홍보도 ‘청소년 누리스톰방

(SNS) 서포터즈단’을 운영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했다.

행사 기간 청소년이 개·폐막식 및 토크콘서트 등 주요 행사의 사회자로 활약하고, 기획단 체험부스운영과 우수 부스 평가 등 체험행사도 주도해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박람회로 치러졌다.

가상현실(VR), 드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체험, 진로체험, 힐링체험 등을 담은 미래생존존, 진로드림존, 행복성장존, 특별어울림존 등 100여 개 체험부스도 인기를 끌었다. 특별 행사로 하상욱 시인이 ‘꿈에 대한 다른 생각’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유시민 작가는 ‘부모 자녀 공감 소통 방법’이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열었다. 이외에도 청소년 예술제, 청소년 로봇·드론대회 청소년 꿈 발표회 등 청소년들이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일 해남서 전남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22개 시·군 사회적경제인 참여

문화예술 공연·농특산물 전시

전남도가 지역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인의 소통·교류의 장인 2022 전남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7일 해남에서 열린다.

전남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22개 시·군과 도내 사회적경제인이 참여해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는 행사로, 2014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전남도와 해남군이 공동 주최하고, 해남군과 도내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지활기업 4개 당사자조직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한마당 추진 협의회가 주관했다. 도와 시·군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주최 방식으로 바뀐 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지난 5월 공모 심사에 해남군이 선정됐다.

행사 슬로건은 ‘더불어 사는 인간의 향기, 전남 사회적경제!’이다. 기념식은 도립국악단의 식전행사와 사회적경제 유공자 표창, 사회적경제 실천서약식, 기부물품 전달 등으로 진행된다. 식후행사로 사회적기업과 지역 단체의 문화예술공연 등

이 준비됐으며, ‘사회적경제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주제로 한 교양강좌와 ‘전남 사회적경제 판로 활성화 방안’ 포럼 등 학술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또 전남지역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60여 부스가 참여해 농산물 전시와 판매 홍보 및 각종 체험 등이 운영되며 창업을 바라는 예비 기업인을 대상으로 상담 부스도 운영된다.

지난 9월 말 현재 전남에는 사회적기업 346개, 마을기업 302개, 지활기업 77개, 협동조합 1340개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최병남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역경제에 가치와 따뜻함을 더하는 사회적경제인의 화합의 장이 3년 만에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